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0년 6월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 21, No. 2, 156-168, June, 2010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 측정도구 개발 -Ajzen의 계획적 행위 이론 적용-

박인혜[1] · 김윤경[2]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간호과학연구소[1],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2]

Constructing a Questionnaire on Male Workers' Sobriety Behavior - Based on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

Park, Inhyae[1] · Kim, Younkyoung[2]

[1]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2]Research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 questionnaire to assess male workers' sobriety behavior based on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Methods:** A primary questionnaire with 56 questions was constr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structured interview with male workers. The Content Validity Index (CVI) was evaluated by a group of experts, construct validity was tested by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and reliability was evaluated by Cronbach's α and the test-retest reliability test. **Results:** Fifty two questions showed higher than .8 of CVI. Four factors explained 78.71% of the total variance among items for sobriety intention and direct measure, and six factors explained 67.99% of the total variance among indirect measure items and those factors coincided with the variables of TPB in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of this questionnaire was .873 and the result of test-retest reliabilty test was relatively reliable. A total of 41 items with 7-point scale were constructed in the final version. **Conclusion:** This questionnaire was valid and reliable to measure sobriety behavior based on TPB in male workers. It can be useful to evaluate the result of a sobriety program for male workers.

Key Words: Alcohol drinking, Workers, Questionnair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전체 남성 직장인의 음주율이 91.2%이고, 고도 폭음률은 23.0%, AUDIT 점수 12점 이상의 문제음주자는 51.4%로 보고되고 있다(Kweon, 2005; Lee & Jekarl, 2002). 이러한 남성 직장인의 과도한 음주는 건강문제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및 사망, 안전사고, 업무능력의 저하, 결근, 가정해체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2005년 우리나라에서 음주관련 질병 발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총 2조 7,919억원, 그리고 음주관련 산업재해의료비 부담은 약 1,419억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남성 직장인의 음주는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 불충분한 자녀양육으로

주요어: 음주, 직장인, 도구 개발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Younkyou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 Hak-dong, Dong-gu, Gwangju 501-746, Korea, Tel: 82-62-220-4350, Fax: 82-62-227-4009, E-mail: dierose@chonnam.ac.kr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학술연구비 (CRI10001~CRI10090)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CRI10001~CRI10090)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stitute of Clinical Medicine.
투고일 2010년 4월 29일 / 수정일 2010년 6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16일

이어져 가정과 사회,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Gmel & Rehm, 2003; Rehm et al, 2010; Song, 2005).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운영 되었으나 현재까지 개발된 프로그램은 주로 이미 알코올에 중독된 대상자 중심이며, 그 내용 또한 일시적 보호중심의 단기적 개입에 그치고 있다(Yoon, 1999). 더하여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하여 간이식을 받은 이들 조차도 그 중 65%가 15개월에서 7년 이내에 다시 음주를 할 만큼 문제음주자가 음주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상기한다면(Perney et al., 2005) 알코올중독 이전 단계부터의 음주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중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사회생활의 한 부분으로 음주가 보편화된 음주문화를 감안할 때 금주보다는 절주가 음주행위를 관리하는데 더욱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절주와 같은 건강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계획적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계획적 행위 이론은 합리적 행위 이론의 확장된 이론으로 개인의 의지만으로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합리적 행위 이론에 지각된 행위통제 개념을 추가하였다(Ajzen & Fishbein, 1980). 계획적 행위 이론은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로 보며, 의도의 결정요인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로 본다(Ajzen, 2006). Armitage와 Conner (2001)는 계획적 행위 이론 관련 연구의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의도와 행위 예측에 계획적 행위 이론이 효과적이며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계획적 행위 이론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 대한 직접 측정과 위 변수에 대한 신념관련 변수를 통한 간접측정, 그리고 행위에 대한 의도를 측정할 수 있어 다른 이론 모형보다는 간단하면서 비교적 정확하게 건강관련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Godin, Valosis, & LePage, 1993).

Wall, Hinson과 McKee (1998)는 대학생에서 과음에 대한 의도가 과음의 유의한 예측인자이고 과음의 30.1%를 설명한다고 보고하였으며, Conner, Warren과 Close (1999)는 대학생은 음주에 대한 태도가 더 강하고, 음주에 대한 지각된 사회 압력이 더 클 때 그리고 술에 대한 지각된 통제가 더 낮을 때 음주에 대한 의도가 강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Yoo (2000)는 대학생의 절주 의도에는 절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절주행위 방해요인 조정능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계획적 행위 이론을 적용하여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의 절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국외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우리나라 직장문화의 독특한 음주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로 대학생의 절주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남성 직장인에게 그대로 적용함에 문제가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남성 직장인의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를 간접 측정하는 변수 등 전체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계획적 행위 이론을 적용하여 음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의 파급이 큰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Ajzen의 계획적 행위 이론을 토대로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남성 직장인의 절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추후 계획적 행위 이론을 적용한 직장인의 절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적 행위 이론을 적용하여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 이론의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여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methodological research)이다.

2. 계획적 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한 도구개발

1) 도구개발을 위한 개념적 기틀

계획적 행위 이론의 이론적 모형을 측정도구개발을 위한 개념적 기틀로 하여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를 규명하였다(Figure 1). 계획적 행위 이론에서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는 행위에 대한 의도(Int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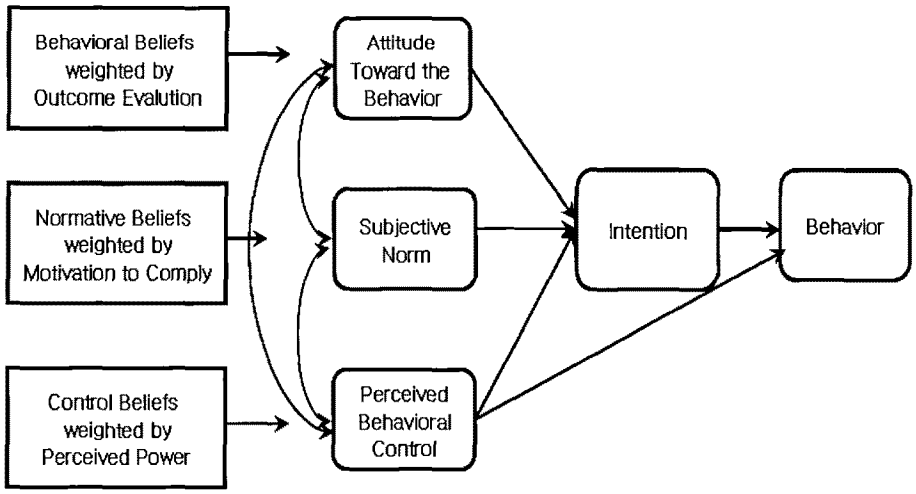

Figure 1. Beliefs as the informational foundation of intentions and behavior (Hanson, 1997).

이며, 개인의 행위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인자는 행위 수행에 대한 태도(Attitudes), 행위와 관련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과 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다. 그리고 계획적 행위 이론은 행위신념(Behavioral Beliefs),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 통제신념강도(Control Beliefs Strength)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를 통하여 행위 의도 그리고 행위에 연결되는 인과적 관계를 가정하였다(Ajzen, 2006). 따라서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는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직접적 측정' 방법과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선행요인인 절주에 대한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강도와 이 세 변수의 각각에 대응하는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s), 순응동기(Motivation to Comply), 통제신념력(Control Beliefs Power)을 측정하여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간접적 측정' 방법을 통하여 측정된다.

이때 직접적 측정은 간접적 측정보다 의도와 행위에 보다 강력하게 결합되어 주어진 행위를 설명하거나 예측함에 있어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반해 간접적 측정에 포함되어진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강도와 같은 변수들은 확인된 직접적 측정 변수들과 강하게 결합되어 무엇이 행위를 이끌고 중재를 위해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Glanz, Rimer & Viswanath,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주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절주 의도와 함께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직접적 측정 변수와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간접적 측정 변수인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강도와 이에 대응하는 결과평가, 순응동기, 통제신념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2) 1차 예비문항 작성

(1) 직접적 측정 변수

본 연구의 목표행위인 절주를 남성 직장인이 2주 이내에 음주로 인한 문제가 없거나 매우 미약하여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음주를 하는 것(WHO, 2010)으로, 절주에 대한 표적(target), 행동(action), 상황(context), 시간요소(time element)를 먼저 규명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계획적 행위 이론과 이 이론의 도구개발 과정을 서술한 Ajzen (2010)과 Ajzen (2002), 그리고 Francis 등(2004)의 연구를 고찰하여 절주 의도,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2) 간접적 측정 변수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간접적 측정 변수인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강도와 이에 대응하는 결과평가, 순응동기, 통제신념력을 측정하는 1차 예비문항은 대상자 심층면담을 통하여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은 2007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남성 직장인 총 3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근무하는 사무실과 접견실 또는 휴게실 등 대상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절주에 대한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강도를 도출하기 위

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시간은 1인당 50분가량 소요되었다.

질문 내용은 행위신념에 대한 3개 문항("2주 이내에 절주를 하는 것의 이익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2주 이내에 절주를 하는 것의 불이익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2주 이내의 절주와 관련하여 말하고 싶은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과 규범적 신념에 대한 3개 문항("당신의 2주 이내의 절주를 찬성할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있습니까? 당신의 2주 이내의 절주를 찬성하지 않을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있습니까? 2주 이내의 절주와 관련하여 생각되어지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통제신념강도에 대한 3개 문항("당신이 2주 이내에 절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나 환경상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2주 이내에 절주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나 환경상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2주 이내의 절주에 대하여 생각할 때 방해되는 어떤 다른 요소(issues)들이 있습니까?")으로 총 9개 문항이었다. 심층면담 결과 전체 30명 중 6명(20%) 이상이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행위신념과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구성된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강도 측정 문항에 따라 각각의 신념에 상응하는 결과평가, 순응동기, 통제신념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3) 1차 예비문항 작성

절주 의도,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직접 측정하는 문항과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절주에 대한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강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절주에 대한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강도 각각에 상응하는 결과평가, 순응동기, 통제신념력 측정 문항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1차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절주 의도 3개 문항, 직접적 측정과 관련하여 절주에 대한 태도 4개 문항, 지각된 행위통제 4개 문항, 주관적 규범 3개 문항과, 간접적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행위신념과 결과평가 각각 8개 문항,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각각 5개 문항, 통제신념강도와 통제신념력 각각 8개 문항으로 총 56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3) 2차 예비문항 선정

(1) 예비 조사 실시

1차 작성된 총 56개 문항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G시의 남성 직장인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되었으며, 예비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의 Cronbach's α값을 구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절주 의도 .806, 절주에 대한 태도 .955, 주관적 규범 .802, 지각된 행위통제 .713, 절주에 대한 태도(간접측정) .542, 주관적 규범(간접측정) .802, 지각된 행위통제(간접측정) .713 이었다. 이들 중 Cronbach's α값이 .7 이하의 낮은 값을 보인 절주에 대한 태도(간접측정)에서 2개 문항을 제거하여 총 5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내용 타당도 검정

예비조사 후 선정된 54개 문항으로 간호학 교수 6인과 예방의학 교수 1인, 간호학박사 연구원 1인이 내용 타당도 평가(Content Validity Index: 이하 CVI)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Likert 4점 척도를 이용하여, 관련 정도를 '1'은 '관련 없음', '2'는 '약간 있음', '3'은 '대체로 있음', '4'는 '매우 관련 있음'으로 하여 CVI가 .8 이상일 경우 그 문항의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Waltz, Strickland, & Lenz, 1991), CVI의 결과에 따라 각 문항을 수정하였다.

4) 최종문항 확정

2차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도구의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고 이를 통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1) 구성 타당도 조사

구성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가 확보된 문항을 사용하여 전국 6개시에 거주하는 남성 직장인 290명에게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총 273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4.1%). 2차 예비문항 중 문항분석을 통하여 각 문항과 전체 문항 간의 상관계수가 .30 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하여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성 타당도 평가는 계획적 행위 이론에서 이미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가정되어 있으므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법 중 오블리민(direct oblimin)방법을 사용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 때 직접 측정에 해당하는 문항과 간접 측정에 해당하는 문항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성타당도 검정 시 요인적재량이 .30 이상이면 유효하다고 본다.

(2)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정

회수된 273부의 질문지를 통해 각 변수의 Cronbach's α

값을 다시 구하였다. 구성 타당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각 변수에 따라 직접 측정 변수에 따른 문항과 간접 측정 변수에 따른 문항으로 분리하여 측정하였으며, 특히 간접 측정 변수의 경우 실제 각 변수에 따른 값을 측정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3) 재검사법 신뢰도 검정

273부를 통한 1차 검사 후 최소 3주 이상의 간격인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1월 10일까지 같은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두 차례 적용하였으며 재검사 시 설문지는 258부가 회수(회수율 94.5%)되었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한 7부를 제외한 251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각 변수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3. 연구대상

1) 심층 면담참여자

간접 측정 변수의 문항 개발을 위한 심층 면담참여자는 G시의 현재 만 20세 이상의 남성 직장인으로써 정신지체와 발달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면담참여자 선정은 면담참여자 선정기준에 맞는 30명을 편의표집하였다. 계획적 행위 이론의 질문지 구성을 위한 연구에서 심층면담 참여자 수로 25명이 권고되었기에(Francis et al., 2004; Godin & Kok, 1996), 본 연구는 이를 충족하였다.

2) 예비조사 참여자

예비조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면담참여자의 선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G시 남성 직장인 23명을 편의표집하였다.

3)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조사 참여자

구성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평가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면담참여자의 선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전국 6개 시 남성 직장인 2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평가 참여자의 경우 1차 검사 참여자는 273명, 재검사 참여자는 258명이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을 한 7명을 제외한 최종 251명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검정을 위한 표본크기가 최소한 문항 수의 5배 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Tabachnick & Fidell, 1996),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적절한 표본 크기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구하였다.
- 측정도구의 구성 타당도는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법 중 오블리민(direct oblimin)방법을 사용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와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구하였다.

5.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이 연구는 C대학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RB) 심의(I-2007-07-059)를 거쳤으며, 심층 면담참여자, 예비조사 참여자,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참여자 모두 연구목적과 절차, 연구참여자의 권리, 연구참여의 자율성 및 비밀보장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제공받았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할 경우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면동의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20~29세가 47.3%로 가장 많았으며, 40세 미만이 전체 86.1%를 차지하였다. 10년 미만의 경력자가 74.7%였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21.3%로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대졸이 74.4%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이 51.9%였고, 가족과 동거하는 대상자가 60.5%였다. 월평균 수입은 201~300만원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사무직 근로자가 40.7%, 기술직 근로자가 31.8% 순이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97.7%가 정규직 근로자였다.

2. 도구의 내용 타당도

1) 내용 타당도 검정

예비조사 후 전체 54개 문항의 CVI를 산출한 결과 CVI .8 이하가 2개 문항 확인되었다. 이는 '나는 향후 2주 이내에 절주를 할 생각이다'(문항 9; CVI=.75)와 '나는 향후 2주 이내에 절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문항 10; CVI=.75)였는데 이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각각 '나는 향후 2주 이내에 절주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와 '나는 향후 2주 이내에 절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CVI .8 이상이었으나 내용이 유사한 4개 문항은 2개 문항으로 통합하였으며, 의미에 혼란이 있는 2개 문항은 제거하였다. 내용이 통합된 문항은 '나는 여가시간을 나만의 취미를 즐기며 보낸다'(CVI=.88)와 '나는 여가시간에 운동을 즐긴다'(CVI=.88)가 '나는 여가시간을 운동을 비롯한 유익한 취미 생활로 대치할 수 있다'로 통합되었으며, '내가 여가시간에 취미를 즐기는 것은, 내가 향후 2주 이내에 절주를 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할 것이다'(CVI=1.00)와 '내가 운동을 즐기는 것은, 내가 향후 2주 이내에 절주를 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할 것이다'(CVI=1.00)가 '내가 여가시간에 운동을 비롯한 취미를 즐기는 것은, 내가 향후 2주 이내에 절주를 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할 것이다'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삭제된 문항은 '나는 업무로 인하여 여가시간을 즐기기 힘들다'(CVI=.88)와 '내가 업무로 인하여 여가 시간을 즐기기 힘든 것은, 내가 향후 2주 이내에 절주를 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할 것이다'(CVI=.00)였다. 이상의 내용 타당도 검정을 통하여 총 5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2) 문항 분석

내용 타당도 검정을 통하여 선정된 50개 문항의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01에서 .82였으며, 이 가운데 상관계수가 .30 이하인 문항은 제거하였다. 상관계수가 .30 이하인 문항은 '내가 인사 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문항 8), '내가 원한다면 나는 향후 2주 이내에 절주할 수 있다'(문항 20), '향후 2주 이내에 절주를 하는 것은 나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줄 것이다'(문항 35), '나는 건강에 대하여 가족의 관심을 받는다'(문항 39), '나는 술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잔을 돌리거나 술잔을 서로 주고 받는다'(문항 42), '나는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다'(문항 43) 등의 6개 문항 이었다. 지각된 행위통제 문항인 문항 20 이외에, 문항 8은 결과평가와 관련된 문항으로 문항 35, 즉 행위신념과 바로 대응되는 문항이나 문항 39, 42, 43은 통제신념력과 관련된 문항으로써, 이에 대응되는 '내가 건강에 대하여 항상 가족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은, 내가 향후 2주 이내에 절주를 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할 것이다'(문항 52), '내가 술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잔을 돌리거나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향후 2주 이내에 절주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문항 55), '내가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가 향후 2주 이내에 절주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문항 56)의 통제신념강도와 관련된 3개 문항이 추가적으로 삭제되었다. 이로써 총 9개 문항이 삭제되고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도구의 구성 타당도

구성 타당도 검정은 문항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41개 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직접 측정 변수 문항과 간접 측정 변수 문항 모두 각각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측정 변수 문항과 간접 측정 변수 문항을 분리하여 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먼저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직접 측정 변수 문항과 절주 의도 문항의 13개 문항을 대상으로 구성 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간접 측정 변수인 절주에 대한 행위신념과 결과평가, 절주에 대한 규범적 통제와 순응동기, 그리고 절주에 대한 통제신념강도와 통제신념력의 28개 문항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적절성을 보기위해 KMO (Kaise-Meyer-Olkin)를 측정한 결과 직접 측정 변수와 절주 의도에 대한 문항은 .864, 그리고 간접 측정 변수에 대한 문항은 .860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 측정 변수에 대한 문항의 요인 분석 전 단위행렬 검정결과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x^2가 2238.10 ($p<.001$)으로, 간접 측정 변수 문항에 대하여서는 x^2가 4615.65 ($p<.001$)으로 나타나 단위행렬이 아닌 구형성을 나타낸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요인회전방식은 본 도구의 문항이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이론에서 이미 가정되어 있으므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법 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방법으로는 모든 변수의 분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을 계산하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문항들은 계획적 행위 이론을 개념적 틀로 하여 처음 예비문항 작성 시부터 각 문항의 개념이 가정되어 변수 수가 정해졌기에 확정적 요인분석방법을 통하여 직접적 측정 변수 문항의 경우 요인의 수를 절주 의도,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4개 요인으로, 간접 측정 변수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 절주에 대한 행위신념과 결과평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통제신념강도와 통제신념력의 6개 요인으로 정하였다. 직접적 측정 변수와 관련된 문항의 회전 결과 총분산에 대하여 요인 1은 47.62%, 요인 2는 13.48%, 요인 3은 10.02%, 요인 4는7.58%로 4개의 요인이 총 분산의 78.71%를 설명하였다(Table 1). 또한 개발된 문항들은 정확하게 Ajzen의 계획적 행위 이론에서

Table 1.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Direct Measure Items and Indirect Measure Items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Direct measure items	Attitudes	13	.915	6.191	47.63	47.63
		14	.910			
		15	.874			
		12	.866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1	.859	1.753	13.48	61.11
		22	.809			
		19	.718			
	Subjective norms	18	.903	1.303	10.02	71.13
		17	.857			
		16	.841			
	Intention	10	.933	0.985	7.58	78.71
		9	.918			
		11	.890			
Indirect measure items	Behavioral beliefs	29	.859	8.141	29.08	29.08
		33	.851			
		32	.822			
		31	.800			
		30	.752			
		28	.570			
	Normative beliefs	47	.952	4.106	14.66	43.74
		46	.949			
		45	.916			
		48	.871			
		44	.718			
	Motivation to comply	26	.849	2.708	9.67	53.41
		25	.837			
		24	.806			
		27	.799			
		23	.711			
	Outcome evaluation	3	.867	1.589	5.68	59.09
		6	.835			
		5	.829			
		2	.821			
		4	.791			
		1	.719			
	Control beliefs strength	39	.623	1.284	4.59	63.67
		36	.559			
		40	.478			
	Control beliefs power	53	.820	1.208	4.32	67.99
		52	.765			
		49	.616			

말하는 구성 개념과 일치되게 각 요인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요인 1은 절주에 대한 태도, 요인 2는 절주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요인 3은 절주에 대한 주관적 규범, 그리고 요인 4는 절주 의도로 명명하였다. 간접 측정 변수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은 회전 결과 총분산에 대하여 요인 1은 29.08%, 요인 2는 14.67%, 요인 3은 9.67%, 요인 4는 5.68%, 요인 5는 4.59%, 요인 6은 4.32%로 6개의 요인이 총 분산의 67.99%를 설명하였다(Table 1).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직접 측정 변수 문항과 같이 계획적 행위 이론의 구성 개념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접 측정 변수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 요인 1은 절주에 대한 행위신념, 요인 2는 절주에 대한 규범적 태도, 요인 3은 절주에 대한 순응동기, 요인 4는 절주에 대한 결과평가, 요인 5는 절주에 대한 통제신념 강도, 요인 6은 절주에 대한 통제신념력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각각의 문항들은 모두 .5 이상의 만족할 만한 요인적재량을 보여주었으며, 이로써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도구의 신뢰도 검정

1) 내적 일관성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개발된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73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절주 의도 .928, 절주에 대한 태도 .917, 주관적 규범 .845, 지각된 행위통제 .724, 절주에 대한 태도(간접측정) .863, 주관적 규범(간접측정) .926, 지각된 행위통제(간접측정) .861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만족

Table 2. Cronbach's α Value of Each Variable

Variables		Items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α if item deleted	α
Intention		9	.843	.903	.928
		10	.882	.872	
		11	.833	.911	
Attitudes	(Direct measure)	12	.753	.911	.917
		13	.847	.879	
		14	.854	.876	
		15	.791	.899	
	(Indirect measure: $\sum_{i=1}^{n} b_i e_i$)	28×1	.579	.917	.908
		29×2	.780	.887	
		30×3	.794	.884	
		31×4	.741	.892	
		32×5	.815	.881	
		33×6	.783	.886	
Subjective norms	(Direct measure)	16	.699	.798	.845
		17	.662	.829	
		18	.777	.720	
	(Indirect measure: $\sum_{i=1}^{n} n_i m_i$)	44×23	.655	.472	.926
		45×24	.837	.711	
		46×25	.881	.853	
		47×26	.911	.872	
		48×27	.769	.648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Direct measure)	19	.524	.663	.724
		21	.632	.535	
		22	.487	.706	
	(Indirect measure: $\sum_{i=1}^{n} c_i p_i$)	36×49	.737	.805	.861
		39×52	.746	.796	
		40×53	.728	.813	
Total					.882

b=behavioral beliefs; e=outcome evaluation; n=normative beliefs; m=motivation to comply; c=control beliefs strength; p=control beliefs power; α=Cronbach's α.

할 만한 수준임을 나타내었다.

2) 검사-재검사 신뢰도

Ajzen (2010)은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 측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함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였다(Table 3).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정결과 5개 문항(1번, 16번, 23번, 28번, 48번)의 상관계수가 .4~.5 이하의 값을 보였고, 그 이외 문항들은 모두 .5 이상의 값을 보여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 측정도구는 총 41개 문항의 자가보고형 질문지로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41개 문항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직접 측정 변수에 대한 총분산설명력은 78.71%, 간접 측정 변수에 대한 총분산설명력은 67.99%였다. 이러한 결과는 억제대 적용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반응 측정도구(Lee, Ha, & Kang, 2008)에서 7개 요인이 51.11%의 요인적재값을 보인 결과나, 죽음 관련 교과목의 교과내용 평가도구(Jo, Lee, & Lee, 2006)에서 9개 요인이 65.55%,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Kwon et al., 2006)에서 8개 요인이 55.107%의 설명력을 보인 결과보다 더 높은 값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가 적은 요인으로도 각 변수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측정 변수 문항들의 4개 요인과 간접 측정 변수 문항들의 6개 요인이 각각 계획적 행위 이론의 절주 의도,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직접 측정 그리고 간접 측정 변수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의 높은 구성타당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수치로써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 행위 이론을 실제 연구에 적용함에 있어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크지 않고 건강 행위와 관련된 연구에 계획적 행위 이론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jzen (2010)은 측정도구의 신뢰도 조사를 위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 평가를 권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검사-재검사 측정 결과, 내적 일관성 Cronbanch's α 값과 유사한 패턴의 신뢰도를 보이나, 모든 문항에서 그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즉 Cronbanch's α 값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평가에서 상관계수의 값이 반드시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는 Cronbach's α 값을 구함과 동시에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평가하여 안정된 신뢰도를 확보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도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직접적 측정 변수의 제 1 요인인 절주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절주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이는 간접적 측정변수인 절주에 대한 행위신념과 결과평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이렇게 형성된 절주에 대한 태도는 절주 의도에 영향을 미쳐서 절주행위 수행에 변화를 줄 수 있다(Ajzen, 1991, 2006). 그러나 심층 면담 결과 선정된 절주에 대한 태도의 간접 측정변수인 절주에 대한 행위신념과 결과평가에 대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남성 직장인들은 절주의 이익으로 숙취가 없거나 건강, 효과적인 업무추진, 경제적 이득, 여가시간 활용, 가정생활에 충실함을 꼽은 반면 절주의 불이익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지적하였다. 남성 직장인들은 회식 등의 자리에서 술을 함께 마시지 않는 것이 상사, 동료 등과의 관계유지를 어렵게 하고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에서도 제외되어 회식 이후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절주가 결국에는 승진 등의 인사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져, 남성 직장인들로 하여금 절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 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남성 직장인들은 현실적 생존을 위해 회식과 사회모임 등을 통한 과도한 음주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남성 직장인의 음주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Choi (2004)의 연구나 직장인들의 주요 음주행태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음주(63.1%), 또는 원샷과 억지로 하는 음주(46.1%)라고 보고한 Do와 Doh (200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절주에 대한 한국 남성세계에서의 독특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남성 직장인의 절주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절주에 대한 행위신념과 결과평가를 올바로 측정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직장 내 음주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직접적 측정 변수의 제2요인인 절주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절주를 수행할 때 개인이 인지한 쉬운 정도나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며, 이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장애물이나 과거의 경험을 반영한다. 이는 간접적 측정변수인 절주에 대한 통제신념강도와 통제신념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이렇게 형성된 절주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절주 의

Table 3. The Final Items to Assess Sobriety Behavior in Male Workers

Variables	items		CVI	Test-retest reliability test	
				r	*p*
Outcome evaluations	1	For me to wake up feeling refreshed without a headache and nausea the following morning after drinking alcohol is desirable	1.00	.414	.012
	2	For me to keep my health is desirable	0.88	.720	<.001
	3	For me to concentrate and be more efficient in my work is desirable	1.00	.721	<.001
	4	For me not to waste money on drinking alcohol is desirable	1.00	.577	<.001
	5	For me to make good use of my spare time is desirable	0.88	.842	<.001
	6	For me to have more time with my family is desirable	1.00	.762	<.001
Intention	9	I have set my goal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from now †	0.75	.850	<.001
	10	I will do my best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	0.75	.854	<.001
	11	I plan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0.88	.769	<.001
Attitudes	12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would be beneficial	1.00	.672	<.001
	13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would be desirable	0.88	.547	.001
	14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would be wise	0.88	.700	<.001
	15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would be worthy	1.00	.794	<.001
Subjective Norms	16	Most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think that I should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1.00	.430	.009
	17	Most people whose opinions I value would approve of me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1.00	.776	<.001
	18	Many people desire that I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1.00	.530	.00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9	For me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is possible	0.88	.735	<.001
	21	I can control my sobriety perfectly within 2 weeks	0.88	.833	<.001
	22	Whether I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or not, is completely up to me	1.00	.520	.001
Motivation to comply	23	If your family thinks about what you should do, how much do you care about it?	0.88	.446	.006
	24	If your superior who does not drink thinks about what you should do, how much do you care about it?	1.00	.654	<.001
	25	If your friend/s thinks about what you should do, how much do you care about it?	0.88	.709	<.001
	26	If your colleague/s thinks about what you should do, how much do you care about it?	0.88	.664	<.001
	27	If your superior who drinks a lot thinks about what you should do, how much do you care about it?	0.88	.704	<.001
Behavioral beliefs	28	Managing my sobriety within 2 weeks will help me to wake-up feeling refreshed without a headache and nausea	1	.494	.002
	29	Managing my sobriety within 2 weeks will help me to maintain my health	1	.839	<.001
	30	Managing my sobriety within 2 weeks will help me to concentrate and be more efficient in my work	1	.771	<.001
	31	Managing my sobriety within 2 weeks will benefit me financially	1	.792	<.001
	32	Managing my sobriety within 2 weeks will help me to make good use of my spare time	1	.543	.001
	33	Managing my sobriety within 2 weeks will help me to be committed to my family life	1	.661	<.001
Control beliefs strength	36	I can easily change my spare time into useful hobbies such as exercise †	0.88	.556	<.001
	39	I get a lot of attention from my family concerning my health	1	.786	<.001
	40	I make great efforts to maintain my health	0.88	.882	<.001
Normative beliefs	44	My family thinks that I should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1	.620	<.001
	45	My superior who does not drink much thinks that I should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1	.580	<.001
	46	My friend/s thinks that I should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1	.626	<.001
	47	My colleague/s thinks that I should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1	.576	<.001
	48	My superior who drinks a lot thinks that I should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1	.491	.002
Control beliefs power	49	If I enjoyed hobbies such as exercise in my spare time, it would make it easier for me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	1	.713	<.001
	52	If my family were more caring in their concerns for my health, it would make it easier for me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1	.667	<.001
	53	If I made concerted efforts to maintain my health, it would make it easier for me to manage my sobriety within 2 weeks	1	.790	<.001

† Revised item through content validity test

도에 영향을 미쳐서 절주행위 수행에 변화를 줌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절주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Ajzen, 1991, 2006). Conner 등(1999)은 음주에 대한 태도와 함께 술에 대한 지각된 통제가 음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음주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가 낮을수록 음주의도가 강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절주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절주 의도뿐 아니라 절주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중요한 변수이나 각 대상자의 상황이나 과거 경험, 근무조건, 업무량이나 직장분위기 등에 따라 절주를 수행할 때 개인이 인지하는 어려운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절주에 대한 통제신념강도와 통제신념력은 변이가 클 수 있는 변수로써 측정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문항 구성 과정에서도 대표성을 갖는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문항분석에서 많은 문항들이 삭제될 수밖에 없었다.

직접적 측정 변수의 제3요인인 절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인 요인으로서 절주를 수행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을 개인이 인지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간접적 측정변수인 절주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이렇게 형성된 절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절주 의도에 영향을 미쳐서 절주행위 수행에 변화를 줄 수 있다(Ajzen, 1991, 2006). 심층면담 결과 남성 직장인들은 본인들의 절주를 찬성하지 않을 그룹으로 '함께 근무하는 술 잘 마시는 상사'와 '동료'를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인의 주 음주상대가 직장동료와 친구들이며, 이들의 영향이 가족의 영향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Choi, 2006; Kim, 2007; Kweon, 2005)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간접 측정 변수인 절주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순응 동기 문항들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본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음주문화라 할 수 있으며, 남성 직장인의 절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들은 다른 국가나 문화에서 측정되어지는 도구와 다른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후 계획적 행위 이론을 근거로 남성 직장인을 위한 절주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대상을 남성 직장인 개인 뿐 아니라 남성 직장인의 절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함께 포함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직접적 측정변수의 제 4요인인 절주 의도는 절주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의사의 정도를 의미한다(Ajzen, 1991). 절주 의도는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절주행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Wall 등(1998)은 대학생에서 과음에 대한 의도가 과음의 유의한 예측인자로써 30.1%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절주 의도는 절주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절주 의도의 측정을 통해 절주행위 수행과 관련된 절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정도와 상관관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절주행위를 증가시키는 직접 측정 변수를 확인하고, 그와 동시에 해당 변수를 간접 측정하는 변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자의 절주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와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절주를 목표행위로 하여, 남성 직장인의 절주를 돕고자 Ajzen (1991, 2006)의 계획적 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Ajzen (2010)이 직접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으며, 문헌고찰과 함께 대상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를 측정하는 직접 측정 변수뿐 아니라 직접 측정 변수를 간접 측정하는 개별적 신념들을 간접적 측정 변수로 하여 계획적 행위 이론을 적용하였다.

문헌고찰과 남성 직장인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56개 문항의 일차예비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구성타당도 조사, 내용타당도 조사, 그리고 예비조사를 포함한 2차에 걸린 내적일관성 검사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여 비교적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항으로 41개 문항의 7점 척도 자가보고형 도구를 완성하였다. 이 도구는 향후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절주행위를 도울 수 있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정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간접적 측정변수 가운데 행위신념의 경우 도출된 문항이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방해요인이 도출되지 못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는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성 또는 세대가 다른 노인이나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Cronbach's α 값의 측정과 함께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를 구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구성하도록 제언한다.

둘째, 직장 내 음주문화 즉, 직장 내 절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과 상사의 술 권유에 대한 압박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도구를 활용하여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를 측정해 볼 것을 제언한다.

넷째, 계획적 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남성 직장인의 절주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Ajzen, I. (2010). *Behavioral intervention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Retrieved March 25, 2010, from http://www.people.umass.edu/aizen/pdf/tpb.intervention.pdf

Ajzen, I. (2006).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2nd ed.). Berkshire: McGraw-Hill Education.

Ajzen, I. (2002). *Constructing a TpB questionnai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Retrieved November 25, 2009, from http://www.people.umass.edu/aizen/pdf/tpb.measurement.pdf. (Nov. 25. 2009.)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 J.: Plantice-Hall Inc.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471-499.

Choi, E. (2006). Selected alcohol consumption patterns of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7*(2), 17-28.

Choi, W. (2004). The Korean drinking culture: De-sacredness of festivals becoming everyday life. *Society & History, 66*, 100-117.

Conner, M., Warren, R., & Close, S. (1999). Alcohol consump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cognitive mediation of pas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8), 1676-1704.

Do, E. Y., & Doh, B. N. (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blem drinking and job stress between employees who started drinking before and after.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8*(1), 17-30.

Francis, J. J., Eccles, M. P., Johnston, M., Walker, A., Grimshaw, J., Foy, R., et al. (2004). *Constructing questionnaire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A manual for health services researchers.* Newcastle: University of Newcastle, Centre for Health Services Research.

Gmel, G., & Rehm, J. (2003). Harmful alcohol use. *Alcohol Research & Health, 27*(1), 52-62.

Glanz, K., Rimer, B. K., & Viswanath, K. (2008).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4th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Godin, G., & Kok, G. (1996).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review of its applications to health-related behaviours.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1*(2), 87-98.

Godin, G., Valois, P., & LePage, I. (1993). The pattern of influence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upon exercising behavior: An application of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6*, 81-102.

Hanson, M. J. (1997).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pplied to cigarette smoking in african-american, puerto rican, and non-hispanic white teenage females. *Nursing Research, 46*(3), 155-162.

Jo, K., Lee, H., & Lee, Y. (2006).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instrument for subjects related to dea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1), 74-83.

Kim, H. (2007). A study on motivation for alcohol use and drinking behavior of employees by social pressur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6*(2), 197-204.

Kweon, G. (2005).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of employees: Focus on the white collar employe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2), 93-118.

Kwon, I. S., Lee, G. E., Kim, G. D., Kim, Y. H., Park, K. M., Park, H. S., et al. (2006).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6), 950-958.

Lee, E., Ha, S., & Kang, J. (2008). Development of testing of an instrument to measure family's emotional response toward physically restrained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4), 629-638.

Lee, H., & Jekarl, J. (2002). *Survey on alcohol use of workers for developing employeeassistance program.* Goyang: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Perney, P., Bismuth, M., Sigaud, H., Picot, M. C., Jacquet, E., Puche, P., et al. (2005). Are preoperative patterns of alcohol consumption predictive of relapse after liver transplantation for alcoholic liver disease? *Transplant International: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Society for Organ Transplantation, 18*(11), 1292-1297.

Rehm, J., Baliunas, D., Borges, G. L., Graham, K., Irving, H., Kehoe, T., et al. (2010).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 dimensions of alcohol consumption and burden of disease: An overview. *Addiction (Abingdon, England), 105*(5), 817-843.

Song, H. J. (2005). *Development of indicator for alcohol polic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iars.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ew York: Harper Collins.

Wall, A. M., Hinson, R. E., & MaKee, S. A. (1998).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ttitudes toward drinking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Studies of Alcohol, 59*, 409-419.

Waltz, C., Strickland, O., & Lenz, E. (1991). *Measurement in nursing research* (2nd ed.). Philadelphia: F.A. Davis.

WHO (2010). Lexicon of alcohol and drug terms publish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trieved June 8, 2010, from http://www.who.int/substance_abuse/terminology/who_lexicon/en/index.html

Yoo, H. R. (2000).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intention, attitude, perceived control, and social pressure for moderate drinking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1*(2), 347-357.

Yoon, M. (1999). A study on th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program to support of recovering process of alcoholics. *Mental Health & Social Work, 8*, 135-159.